



제목	Arsacids and Sasanians: Political Ideology in Post-Hellenistic and Late Antique Persia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1. 10. 31.
저자	M. Rahim Shayegan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570
ISBN 또는 ISSN	978-0521766418

내용 요약

이 책은 아르사케스조와 사산과의 관계, 로마와 사산과의 관계를 통해 사산조 초기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연구한 것이다. 저자는 아르사케스조와 사산조가 아케메네스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그리스와 로마의 사료의 신빙성 문제를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저자의 주장은 사산조가 아케메네스의 유산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로마 영토에 대한 침입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풍부한 참고문헌과 아르사케스조의 문서에 대한 연대기표, 지도, 그림 등은 이해에 도움을 준다.

1장에서 저자는 사산조의 비문에서 이들이 아케메네스 왕들의 후손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장에서 디오(Dio), 헤로디아누스(Herodianus), 암미아누스(Ammianus) 같은 그리스와 로마 작가들의 글을 볼 때 사산조의 팽창주의적 정책이 아케메네스 정책의 부활이라고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아케메네스를 회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르사케스조의 정치 프로그램의 일부이고, 또 로마와 대항하고 있는 폰투스의 미트리다테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4장은 로마와 알렉산드로스의 이미지를 중요시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이견이 많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마케도니아 정복자에 대한 이미지는 전체적, 부정적, 비로마적으로 인식될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와 아케메네스를 융합하고자 하였으므로 로마와는 거리가 있었다. 아르사케스조에서 '왕 중의 왕'이라는 표현에 대한 바빌로니아의 영향, 로마와 적대적인 폰투스의 영향, 로마에 대한 알렉산드로스의 영향에 관한 주장은 색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